

# 터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6.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11
IV. 국제신인도	16
V. 종합의견	20

## I. 일반개황

면적	784천 km <sup>2</sup>	G D P	7,353억 달러
인구	75.83 백만명	1 인 당 GDP	9,697 달러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신터키리라(Yeni Turkish Lira)
대외정책	친서방 및 친아랍의 균형외교	환율(달러 당)	1.50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인 흑해, 마르마라해, 에게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다넬즈 해협을 아우르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슬람 문화권으로서 중동시장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7,583만 명의 인구 보유).
- 터키는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한 NATO 회원국이며, 여타 이슬람 국가와는 달리 정교분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 2004년부터 EU 가입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2015년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이프러스 독립국 지위 인정문제, 쿠르드족과의 갈등문제 등의 사유로 EU 가입은 아직 요원한 상황임.
- 최근 터키는 지정학적 중요성, 시장잠재력, 거대시장 인접성 등 유망시장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post-BRICs군에 빠짐없이 언급되는 국가이고, 우리나라와는 2010년 4월부터 FTA 협상을 본격 추진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경제성장률은 2009년 -4.7%에서 2010년 8.9%를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

○ 터키 경제는 2000~01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으나 IMF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각종 경제개혁 과제의 착실한 이행으로 2004~07년 평균 7%를 상회하는 고성장세를 기록함.

○ 2008년에는 주요 수출시장인 유로존의 경기침체, 내수 및 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0.7%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9년에는 유럽지역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 FDI 유입 감소, 여신 축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4.7%로 더욱 하락함.

○ 2009년 4분기부터 산업생산 증가 및 투자심리 개선으로 경제상황이 호전되었고, 2010년 들어서는 저금리 기조하의 내수 증가, 여신 증대, 고용 확대 등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2010년에는 8.9%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기저효과는 있었지만 경제성장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2010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10.3%에 달해 G20 국가 중 중국과 더불어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에는 내수 증가, 설비투자 증대, 노동시장 호전, 소비자 및 기업 신뢰지수 회복, 자본유입 지속 등으로 전년의 경제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EU 회원국의 수입수요가 위축되면서 전년보다 다소 낮은 4.5~6.1%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sup>e</sup>
경제성장률	6.9	4.7	0.7	-4.7	8.9
재정수지 / GDP	-0.6	-1.6	-2.2	-6.7	-3.7
소비자물가상승률	10.5	8.8	10.4	6.3	8.6

자료: IMF, EIU.

□ 재정수지 적자는 점진적 개선추세

- 터키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총선 및 지방선거를 통해 선심성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나타냄. 2009년에는 지방선거 관련 재정지출 지속,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실업률 상승에 따른 사회보장 관련 지출증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6.7%로 크게 악화됨.
- 터키 정부는 2010년부터 휘발유, 담배, 주류 등 품목에 대한 간접세를 인상하는 등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재정지출 증가율(전년 대비 7% 증가)을 재정수입 증가율(전년 대비 10% 증가)보다 낮게 책정한 결과, 2010년 터키의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7%로 개선됨.
- 터키 정부는 2011년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기금의 효율적 관리, 재정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2011년 재정수지 적자는 6월의 총선 실시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세 지속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 이자지급 감소 등으로 GDP 대비 2% 대로 개선될 전망이다.

- 정부채무/GDP: 41.7%('10) → 40.1%('11)

□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우려되지만 아직은 관리가능한 수준

- 터키 경제에서 고인플레이션은 경제위기의 유발 요인과 경제성장의 장애 요인이 되어 왔음.
- 2008년에는 식료품(음료), 에너지(원유, 전기), 교통비 등 공급측면의 가

격 급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았음. 2009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세 및 국내외 수요 감소로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7.5%보다 낮은 6.3%를 기록하였음.

- 2010년 들어 물가상승세가 우려되지만 통화(리라화) 강세로 물가상승 압박이 일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01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간접세 인상, 내수 회복 등으로 8.6%(목표치 6.5%)를 기록함.
- 터키 통화당국은 2012~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5%(허용밴드  $\pm 2\%$  포인트)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2011년 목표치를 5.5%로 설정하였으나 내수 증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11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5%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경제 구조적 취약성은 지속적 개선

- 터키는 해외차입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외환 및 금융 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였던 대표적인 신흥투자시장이었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 상황을 비교적 잘 극복한 국가로 평가됨.
- 터키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 대기성 차관을 빈번히 지원받았는데, 2008년 5월 IMF 대기성 차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과거와는 달리 IMF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국제 신용평가기관 등도 터키의 경제체질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특히 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시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개혁 추진 등으로 경제펀더멘털이 개선되었으며,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경색, 환율 불안 등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남.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흥투자시장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미달러 대비 리라화 환율이 2008년 9월 1.24에서 12월 1.54, 2009년 3월 1.71 수준으로 일시 급등하는 등 리라화도 불안한 양상을 나타냄. 그러나 2009년 상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리라화 가치도 다시 강세로 돌아서며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미달러 대비 1.5 내외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미달러 대비 연평균 리라화 환율: 1.5500(2009) → 1.5028(2010)

- 2010년 중에는 1.50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리라화가 강세(미달러화 약세 기조 등의 영향)를 보여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하면서 통화강세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경상수지 등 국제수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2005년 이후 국영기업 민영화 등 경제구조개혁 지속 추진

- IMF는 2005년의 터키 경제위기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민영화를 터키 정부에 강력 권고하였으나 터키 정부는 민영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민영화 추진실적은 다소 저조한 편이었으나, 2005년 이후 국영기업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터키 정부는 전력, 통신, 정유 및 자동차 관련 국영기업 지분 매각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장여건이 허용된다면 에너지 및 금융부문을 포함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 2002년부터 집권한 터키 현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출을 억제하면서 성장과 고용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재정수지 적자 축소, 조세분야 등에 대한 추가 개혁 등으로 외국인투자 기업들의 터키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점진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추세임.

## 나. 성장 잠재력

### □ 지정학적 요충지, 풍부한 노동력 보유 등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 형성

- 터키 인구는 2010년 기준 7,583만 명으로 유럽 국가 중에는 독일(8,280만)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35세 이하의 젊은 계층이 전체의 63%로 노동력이 매우 풍부한 편임.
- 터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실적은 2003년 18억 달러, 2004년 27억 달러 수준에서 2005년에는 100억 달러를 상회하기 시작해 2007년에는 22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에는 180억 달러로 위축되면서 2009년에는 76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나, 2010년에는 89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터키는 NEXT-11(골드만삭스), BEM(미국 상무부), VISTA(일본 브릭스경제연구소) 등으로 언급되며 브릭스에 근접하는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대표적인 신흥투자시장(post-BRICs)으로 부상하면서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
- 또한, 근로자의 숙련도, 교육 수준, 근로의욕, 노동생산성 등 터키 노동 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 기업들의 평가도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 2007~13년 제9차 7개년 경제개발계획 추진

- 터키 정부는 2005년 10월부터 EU 가입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급증한 가운데, 2007~13년 제9차 7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터키는 G20 국가로서 세계 경제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 제9차 경제개발계획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별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있으며,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개선, 낙후지역 개발, 전자정부 효율성 및 보급 강화 등의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이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됨.

- 또 터키 정부는 경제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기개발프로그램(MTP)을 매년 수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2011~13년 중기경제프로그램(MTP)을 통해 재정관리, 사회보장기금의 효율적 관리,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 억제, 수력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터키 정부는 당분간 IMF 대기성 차관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

- 2010년 3월 9일, 터키 정부는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 한 2011년 6월 총선 이전에는 IMF 차관을 적극적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데 이어 3월 10일에는 IMF가 터키에 대한 대기성 차관 추가 지원 협상을 당분간 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함. 이 같은 배경에는 터키 경제펀더멘털이 개선되어 IMF 지원없이도 터키가 최근의 경제상황을 잘 극복한 국가로 평가한 데서 비롯됨.

- 터키는 2008년 5월 3년간 IMF 대기성 차관(100억 달러) 지원 이전에도 1999년 12월 2년간 230억 달러, 2002년 2월 3년간 190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음.

- 2010년 10월 터키 현지 조사출장으로 터키 재무부 및 재정부 등 정부당국자와의 면담을 통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터키의 공적외채 및 재정수지가 여타 경제위기 유럽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상태이므로 터키는 당분간 IMF 차관 등 국제사회의 금융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대외개방 경제정책 추진을 통한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터키 정부는 수입대체 산업정책보다는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대외 개방형 수출드라이브 산업정책을 지향하였음. 수출지향 전략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1980년대에는 무역자유화와 수출촉진 산업정책을 채택하였고, 1990년대 들어서는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맞추어 WTO 및 여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무역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시행하였음.



- 터키는 EU 가입을 위해 1996년 1월,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수출입제도를 전반적으로 EU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기 시작함. 수출지향의 투자 증대, 외국자본과 기술의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1985년 최초의 자유무역지대를 지정한 이후 총 21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운영되고 있음.
- 터키 정부는 2001년 금융부문 개혁, 2003년 외국인투자법 개정, 2007년 법인세 감면, 고용주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지원 보장, 이자 보전, 토지사용 무상지원, 2009년 포괄적 인센티브 부여 등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함.
- 기업경영여건 평가순위 (IFC): 73/183('09) → 65/183('10)
- 글로벌경쟁력지수 평가순위 (WEF): 61/133('09) → 61/139('10)
- **2008년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여 6월 말 기준으로 6.25% 수준 형성**
- 터키 중앙은행은 리라화 가치하락 및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2006년 중반 이후 기준금리를 17.5% 수준에서 유지하여 왔으며, 2008년 10월까지 16.75%의 금리수준을 유지하였음.
- 이후 터키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차입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으며, 2009년 11월에는 7% 수준으로 인하한 데 이어 2010년 12월 기준금리를 6.5%로 인하하였고 2011년 1월에도 25bp를 추가 인하하여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기준금리는 6.25% 수준임.
- 터키 중앙은행은 2010년 4월과 9월에 출구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나, 2011년 상반기 중에는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지만 2011년 하반기에는 식음료,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3. 대외거래

#### □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추세

- 터키 경상수지는 상품 수출에 비해 중간재 및 원자재 수입 증가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기조가 지속되었으며, 2008년에도 리라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부담, 외국인투자 관련 배당금 지급 등으로 GDP 대비 5.8%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에는 주요 무역상대국 (EU, 러시아 등)과의 교역규모가 위축되어 수출입실적도 급감하였음. 상품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산업생산 감소로 인한 원부자재 수입 감소, 외국인투자 송금 감소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140억 달러로 2003년 이후 6년만에 최저치)는 GDP 대비 2.3%로 오히려 개선되었음.
- 2010년에는 총수출증가율이 전년의 -19% 수준에서 7%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내수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리라화 강세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6.6% 수준으로 다시 악화됨.
- 2011년에는 내수 증가에 따른 자국내 수입 증가, 터키의 주요 수출시장인 EU의 긴축재정정책에 따른 수출 감소, 터키 수출실적의 20%를 차지하는 중동지역의 정변으로 인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7%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sup>e</sup>
경 상 수 지	-32,249	-38,434	-41,959	-13,991	-48,561
경 상 수 지 / GDP	-6.1	-5.9	-5.8	-2.3	-6.6
상 품 수 지	-41,056	-46,852	-53,021	-24,850	-56,354
수 출	93,613	115,361	140,800	109,647	120,923
수 입	134,669	162,213	193,821	134,497	177,277
외 환 보 유 액	60,710	73,384	70,428	70,874	80,713
총 외 채 잔 액	195,537	235,984	263,532	251,372	290,688
총외채잔액/GDP	39.0	36.5	36.1	40.9	39.5
D S R	33.6	32.5	29.9	41.6	28.6

자료: IFS, EIU.

- 현재 물가 상승 및 경상수지 적자 관리가 터키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터키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 등에서 기인함.

□ 외환보유액은 점진적 증가추세

- 터키의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704억 달러, 2009년 말 709억 달러에서 2010년 말 807억 달러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말 기준 월평균 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은 4.6개월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외환보유액 (IMF): 826억 달러('11.2) → 868억 달러('11.3) → 902억 달러('11.4)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실적은 2006~08년 연평균 2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76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나 경상수지 적자를 FDI 유입 등을 통한 자본수지 흑자로 보전하고 있음.

- 터키 정부는 2010년 1월 20억 달러의 정부채권(30년 만기, 미채무성증권 기준 225bp), 3월 10억 달러의 정부채권(11년 만기, 미채무성증권 기준 203bp)을 성공적으로 발행하였으며, 2011년 3월에는 1,800억 엔(22억 달러 상당) 규모의 10년 만기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하는 데 성공하는 등 터키의 국제금융시장 자금조달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외채구조는 종전 평가에 비해 크게 변동하지 않은 상황

- 터키 총외채잔액은 2010년 말 2,907억 달러로 추정되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09년 말에는 40.9%로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2010년 말에는 39.5% 수준으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2011년에는 민간부문의 해외차입이 증가하면서 총외채잔액의 GDP 대비 비중은 42%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공적외채/총외채 비중: 31.0%('08) → 33.8%('09)

- 단기외채/총외채 비중: 16.5%('08) → 15.8%('09)

- 한편,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은 2008년 29.9%,

2009년 41.6%, 2010년 28.6%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수출시장인 유로존의 경기부진으로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당분간 외채원리금 상환비율이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2011년 6월 총선에서 정의개발당(AKP)의 재집권 성공으로 정치 안정성 제고

○ 2011년 6월 12일에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이 49.9%의 득표율로 승리하며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함. 정의개발당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25.9%를 득표한 공화당(CHP), 13.0%를 득표한 민족주의행동당(MHP)에 승리함으로써 향후 정의개발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예상됨.

- 이슬람계 정의개발당은 과거 복지당(Welfare Party)에서 활동하였던 자유우익 노선의 에르도안 총리에 의해 2001년 8월에 창당되었으며, 2002년 11월 조기총선에서 34%의 득표로 550석 재적의원 중 363석을 차지하면서 집권함.

- 정의개발당은 2007년 7월 22일 조기총선에서 47%의 득표율로 전체 550석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340석을 차지하여 재집권에 성공함. 터키의 국가원수는 대통령(7년 단임)이지만,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여당이 정권을 주도하는 의원내각제를 구성하고 있음. 현재 압둘라 굴(Abdullah Gul) 대통령이 2007년 8월 의회에서 선출되었고, 에르도안 총리(4년 임기)가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 2011년 6월 총선에서 의회 의석(550석) 중 정의개발당 326석, 공화당 135석, 민족주의행동당 53석으로 3개 정당만 원내 의석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 7월 총선결과(정의개발당 341석, 공화당 112석, 민족주의행동당 70석, 평화민주당 20석 등)와 비교하면, 정의개발당과 민족주의행동당의 의석은 줄어들었으나 제1야당인 공화당의 의석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 이번 총선 직후 에르도안 총리는 현재의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중심제(5년 임기, 연임가능)로 전환하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추가 개헌안\* 논의가 향후 터키 정국의 최대 이슈(집권 3기의 핵심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67석은 국민투표없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결정족수이고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330석은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정족수인데, 정의개발당은 이번 총선에서 326석(국민투표 실시)을 차지해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4석이 부족한 상황임.

- 2009년 3월 29일 실시된 지방선거(차기: 2014년)에서도 정의개발당은 3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하였으나 2004년 지방선거에서의 42%, 2007년 총선에서의 47%와 비교시 지지율은 크게 하락한 반면, 야당인 공화당과 민족주의행동당은 각각 23%, 16%의 득표율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선전함.

□ 2010년 9월 개헌안 가결로 야당, 사법부 및 군부 세력과 집권 여당간 갈등 잠재

- 정의개발당은 판검사 최고위원회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확대, 정당 해산 요건 및 절차 강화, 1980년 9월 쿠데타 재판 금지조항 삭제 등 현행(1982) 헌법의 26개 분야를 개정하기로 2010년 3월 발표함. 2010년 5월 의회 표결에서 개헌안 승인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개헌안의 국민투표 부의는 가결되었고 대통령도 동 개헌안에 서명함.

- 2010년 9월에 실시된 국민투표(투표율 77%)에서 동 개헌안이 찬성 58%, 반대 42%로 통과되어 사법부와 군부의 권한이 약화된 반면,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은 강화됨에 따라 공화당(강경 민족주의), 국민행동당(우파) 등의 야당과 사법부 및 군부 세력은 동 개헌안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강력 비판함.

- 2009년 말에도 군부 및 검찰간부 등 민족주의자(Ergenekon)\*의 쿠데타 기도 혐의로, 2010년 2월에 전현직 군간부를 포함한 50여명이 체포되면서 집권 여당과 검찰 및 군부간 긴장이 고조됨. 당시 민족주의자들의

쿠데타 기도 혐의는 여러 차례에 걸친 개헌(정부기관 통제 강화 등) 추진으로 터키를 친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는 집권 여당의 시도에 반발한 것임.

- 2009년의 민족주의자 체포 사건은 2008년 초 군부 및 검찰간부가 정의개발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청(동년 7월 최종부결)한 것에 대해 집권 여당이 보복한 조치로 분석됨.

※ 퇴역 장성, 군소 정당 당수, 언론인, 변호사, 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극우파 네트워크로서 2008년부터 150여명이 2003년 AKP 정부 출범 저지, 2009년 말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음.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사회적 안정도는 비교적 양호

- 국민의 99%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1923년 아타트르크 정부 수립 이후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속하고 있어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세력간 분쟁은 별로 없음. 국민성은 성격은 급하나 근면하고 소박한 편임.

- 실업률: 9.7%('08) → 12.5%('09) → 10.7%('10)

- 회교 과격단체가 활동하고 있지 않고, 쿠르드족 분리독립 관련 군부간 무력충돌도 동북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앙카라를 기준으로 서부지역에 주로 진출함.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특히 이스탄불의 경우 동서양의 문화가 접목되는 국제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고 연간 2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 □ 쿠르드족과의 갈등문제가 정치 사회적 안정의 위협요인으로 작용

- 2005년 2월, 이라크총선에서 쿠르드족이 27%를 득표해 주요 정치세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쿠르드족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터키 남동부 지역에서 쿠르드족 분리(1,400만명, 인구의 18% 수준) 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왔음.

- 2006년 9월 쿠르드족 분리주의자들의 폭탄 테러, 2007년 9월 Sirnak 지

방에서의 터키 정부와 쿠르드족간의 무력충돌, 2007년 12월 터키 무장군인의 쿠르드족 반군기지 공습, 2008년 2월 터키 지상군의 이라크 지역 침입 등의 충돌사태가 발행하였으며,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 반군, 이라크 등과의 평화적인 협상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

- 특히, 터키의 쿠르드족 반군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 등이 EU 가입의 걸림돌이 됨에 따라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여 왔음. 2009년 7월 베시르 아탈레이(Besir Atalay) 내무장관은 쿠르드족 문제에 대한 민주적인 해결책 도입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으며, 동년 8월 에르도안 총리는 쿠르드민주사회당(DTP) 총재 아멧 투르크(Ahmet Turk)와의 이례적인 회동을 통해 쿠르드족과 관련된 최근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 바 있음.

### 3. 국제관계

#### □ 친서방, 친아랍의 균형외교 지향 (실용적 중도노선)

- 이슬람 국가중 유일한 NATO 회원국인 터키는 유럽, 중동,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서방 및 중동 국가들과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며 친서방, 친아랍 균형외교를 지향함. 에르도안 총리의 3연임으로 기존의 대외관계 및 외교노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1947년 3월 터키가 트루만 독트린을 지지함으로써 본격화되어 1980년 미국과 국방경제협력협정(DECA)을 체결한 이후 1991년 진보된 협력관계를 거쳐 199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함.
  -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터키를 활용하여 중동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2010년 3월, 미하원이 1915~18년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사건을 인종살상(genocide)으로 규정하면서 양국간 외교관계는 일시 악화됨.
- 터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천연가스 및 석유 자원개발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EU, 중동(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및 러시아와 구소연방 국가와도 비교적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관계, 대 리비아 군사작전 등에 대해 서방 입장과는 달리 대외관계를 중립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주변 아랍계 국가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음.

- 미국 및 NATO의 미사일방어체계(MD) 터키내 배치문제로 터키 정부는 이란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함에 따라 동 미사일방어체계 배치계획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사이프러스 독립국 지위 인정문제는 여전히 담보 상태

- 전통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와도 최근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나 사이프러스 문제는 그리스와의 관계 정상화에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음. 사이프러스 문제해결을 위한 터키계 및 그리스계 주민간 협상은 물론 UN 등 국제사회의 중재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통합에 관한 양측의 합의도출에는 실패함.
- 2004년 5월 남부사이프러스가 단독 EU에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EU는 남부사이프러스만 정식국가로 승인함.

□ EU 가입협상은 정체국면

- 199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터키에 가입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정치·경제적 기준(Copenhagen Criteria) 충족으로 2004년 12월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EU 가입협상을 시작함.
- 터키는 사형제도, 국가안보법 및 군부의 의원선출권 폐지 등의 인권관련 법안 통과 등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EU가 요구하는 개혁조치를 단행하였으나, 2006년 12월 터키의 사이프러스발 선박 및 항공기 입항 금지를 주된 이유로 EU 가입협상 항목 중 상품 및 서비스의 역내 자유이동 등과 관련된 8개 조항(총 35개 조항)에 대한 협상이 중단된 바 있음.
- EU는 터키 인권 부문이 일부 개선되었음을 인정하나, 언론·종교의 자유, 여권, 소수민족 및 노동자 권리, 군부에 대한 민간 통제 부문에서는 여전히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터키는 2015년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이프러스 독립국 지위 인정문제, 쿠르드족과의 갈등문제 등은 터키의 EU 가입이 지연되고 있는 중요 사안임(2010년 말 EU 가입협상 잠정중단).



- 가스관 건설 관련, 터키는 유럽과 러시아의 입장을 모두 지지
  - 나부코(Nabucco) 가스관 프로젝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가스관이며,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가 참여하고 있음. 이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가스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유럽과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가즈프롬)와 이탈리아(Eni)는 사우스 스트림(South Stream) 가스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터키와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가스관 건설(불가리아를 기점으로 그리스-이탈리아 연결 사업과 세르비아-헝가리-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이탈리아 연결 사업)을 통해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유럽시장을 더 확고히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터키는 나부코 가스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나, 유럽의 암묵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우스 스트림 가스관이 자국의 영해인 흑해를 통과하는 것을 러시아와 공식적으로 합의(2009년 8월)함에 따라 유럽과 러시아의 입장을 모두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2009년 이후에는 유럽 에너지 공급망의 중심국가가 되려는 터키의 구상과 터키를 경유하여 유럽에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망을 다양화하려는 러시아의 입장이 맞아 떨어지면서 양국 간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분야 협력증진을 모색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은 : 최고 부보율 적용(Full Cover Available)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Full Cover Available)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ST Cover Available, Restrictions May Apply)
- IMF의 터키 경제분석과 전망에 대해 긍정적 평가
  - 터키는 1979년과 1982년에 외채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으며,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잦은 유동성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1984~2005년 IMF로부터 총 520억 달러(승인기준)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았음. 2011년 5월 말 기준으로 터키의 IMF 대기성 차관 잔액(상환부담분)은 45억 달러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IMF의 2010~11년 터키 경제분석과 전망 보고서에서는 전반적으로 터키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2008년 5월 3년간 IMF 대기성 차관의 지원기간(3년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고, 재정 및 유동성 관리, 외채 관리능력이 개선됨에 따라 금융 및 외환시장이 과거와는 달리 안정적으로 형성됨.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실적 미미

- 2010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Export Credit Agency) 인수 승인 잔액은 단기 25억 달러, 중장기 184억 달러로 총 209억 달러이며 이중 연체금액은 1,860만 달러로 전체의 0.09%에 그쳐 공적 수출신용에 대한 연체금액은 거의 없음.

- OECD CRAM(Country Risk Assesment Model)의 ECA 거래실적에 대한 모델등급은 0등급(0.7%)으로서 최상위 수준임.

##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2009년 말 이후 국제신용도 평가기관의 터키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은 상향조정 추이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1	C2
OECD	4등급 (2011.1.)	4등급 (2010.1.)
S&P	BB (2011.5.)	BB (2010.8.)
Moody's	Ba2 (2011.6.)	Ba2 (2010.1.)
Fitch	BB+ (2011.6.)	BB+ (2010.11.)

- OECD의 터키 국가위험도 평가등급은 2008년 상반기 한 단계 상승하여 현재 4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S&P, 무디스 및 피치는 2011년 6월 기준으로 각각 BB, Ba2 및 BB+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2011년 1월 OECD CRE(Country Risk Experts) 회의에서는 터키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노력, 정부의 효과적인 경제정책 수행(재정건전성 양호), 건전한 금융시스템 운용,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조달능력 등을 반영하여 터키 국가신용등급이 종전의 4등급으로 유지됨.
- S&P는 2010년 2월, 대외채무 상환부담 경감 등 터키 경제정책의 유연성이 개선된 점,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터키 금융시장의 건전성이 개선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터키 정부채권 신용등급 전망을 BB-/Stable에서 BB/Positive로 한 단계 상향조정함.
- 무디스는 2010년 1월, 터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Ba3/Stable에서 Ba2/Stable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는데, 무디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가운데 터키 정부의 경제상황 극복 노력으로 위기상황을 상당부분 흡수하는 수준에 도달한 점을 평가하면서 등급 상향조정의 배경을 설명함. 또 2010년 10월에는 터키 신용등급 전망을 Ba2/Stable에서 Ba2/Positive로 상향조정하면서 무디스는 터키의 경제편더멘털 개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경기회복, 재정수지 및 정부채무 관리능력 등에 대해 호평함.
- 피치도 2010년 11월, 터키 정부채권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의 BB+/Stable('09.12)에서 BB+/Positive로 상향조정함으로써 2010년 이후 터키 국가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유지 또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 2010년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 증가추세 시현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2007~09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7년 43.7억 달러(우리나라의 대 터키 수출 40.9억 달러), 2008년 41.4억 달러(수출 37.7억 달러), 2009년 31.0억 달러(수출 26.6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42.7억 달러(수출 37.5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대 터키 무역수지 흑자폭이 2007년 38.1억 달러에서 2009년 22.3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나 2010년에는 32.4억 달러로 다시 확대되면서 무역불균형 현상은 지속됨.

□ 대 터키 직접투자는 연도별 변동성 확대

- 우리나라의 대 터키 직접투자는 2006년에는 1,59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1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2008년 6,930만 달러, 2009년 1억 9,242만 달러, 2010년 6,418만 달러로 연도별 변동성이 확대됨.
-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터키 직접투자실적(투자금액 누계기준)은 6억 538만 달러인 반면, 터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실적은 955만 달러(신고금액 누계기준)로 나타남.

□ 한-터키 양국간 FTA협상 추진 중

- 한-EU FTA가 2010년 10월에 체결(공식 서명)되어 2011년 7월 이후 잠정 발효될 예정이어서 EU와 관세동맹(1995년 12월 체결, 1996년 1월 발효)을 체결한 터키와의 FTA 체결을 위한 양자간 협상이 본격 추진되고 있음.
- 터키가 기존에 체결한 FTA의 대다수가 상품 분야이고 우리나라도 상품 분야에서의 체결을 우선 목표로 하여 2010년 4월부터 양국간 1차 협상(앙카라)을 시작으로 7월(서울) 2차 협상을 완료하였고, 2011년 3월 3차 협상을 마쳤으며 현재 4차 협상을 준비 중에 있음.
- 양국간 경제교류는 정치외교적 관계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나 한-터키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교역 및 투자 규모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표 4> 한·터키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3,772,570	2,660,688	3,752,906	자동차 (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수 입	361,913	434,435	516,290	광물성 연료, 섬유제품, 농산물
합 계	4,134,483	3,095,123	4,269,196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 의견

- 터키 경제는 2009년 4분기부터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2010년에는 내수 증가, 여신 증대, 고용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의 -4.7%에서 8.9%로 전환되었고 재정수지 적자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재정위기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반면, 소비자물가의 상승 압박이 증대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내수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점이 터키 경제관리상 최대 현안으로 대두됨.
- 터키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외환 및 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였던 대표적 신흥투자시장이었으나 터키 정부의 효과적인 경제정책 시행 등으로 2008년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잘 극복한 국가로 평가됨. 특히 경제펀더멘털 및 구조적 취약성 개선, 재정 및 외채 관리능력 향상,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2011년 6월 총선으로 집권 여당(정의개발당)이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에르도안 총리가 재선임되면서 집권 3기의 국정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정치 안정성은 제고된 것으로 분석됨. 다만, 사이프러스 독립국 지위 인정 문제, 쿠르드족과의 갈등문제 등으로 EU 가입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터키는 당분간 IMF로부터 대기성 차관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외채상환태도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또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2010년 들어 터키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함.

부실장 조 양 현 (☎02-3779-5707)

E-mail: [yhcho@koreaexim.go.kr](mailto:yhcho@koreaexim.go.kr)